

한국진공학회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한국진공학회 회원 여러분께 인사와 더불어 제12대 회장 후보로서 저의 소견을 이 지면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1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진공학회**는 명실공히 학제간, 산·학·연 연구개발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음은 회원 모두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봉사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 간 저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진공학회** 운영에 참여하여 왔고, 최근 운영이사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을 두루 맡으면서 SCIE 등재를 위한 학회지(JKVS), 조직, 홈페이지 재개편, 학술대회 활성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우리 학회**를 국제적 위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 조성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국진공학회** 제12대 회장직을 맡게 되면, **우리 학회**가 세계적 학술단체로 도약하기 위하여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학회의 정체성 제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 운영진이 단행한 일련의 조치 (제11대 학회장 임기 단축, JKVS 개편, 사무국 이전 등)에 따른 회계연도 변경 (01.01-12.31), JKVS의 SCIE 등재, On-line Journal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우리 학회**의 운영 효율화와 위상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국제학술대회인 ICMAP와 2016년 개최 예정인 IVC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박막-에너지-나노-표면·계면 분야의 새로운 학술대회를 구상, 학술활동 성과를 가시화시킴과 동시에 학회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유일의 학제간 학술단체인 **한국진공학회**의 특성을 차별화한 진공·플라즈마-표면·나노-반도체·에너지 관련 기획사업을 추진하여 회원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명실공히 산·학·연 학술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회**의 학제간 특유성 (진공, 표면·계면, 플라즈마·디스플레이, 반도체·박막, 나노과학, 에너지)을 편집주제로 제시한 영문학술지 (가칭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cience and Technology, JIST")를 창간 (JKVST 복간)하여, 국제학술지 (SCI) 등재지로 발전시키는 기본틀을 구축하겠습니다.

창립 4반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진공학회**가 새로운 모습의 국제적 위상의 학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06월 18일

한국진공학회 제12대 회장 후보 노삼규 배상